

# 衣服形態에 따른 價値評價에 관한 研究

—美的 要因을 中心으로—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강사 김 영 하

교수 유 태 순

## 目 次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 방법

IV. 결과 및 고찰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 I. 서 론

의복은 다면적이고 복잡한 요소로 성립되어 있어 선택이나 착용시 착용자 각자의 개성에 따라 복잡한 심리적 영향을 받는다. 또한 의복은 인간의 미의식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생활상 기능을 가진 조형의 한 분야로 인간의 조형활동 전반에다 두고 생각해야겠다.

이러한 디자인 원리에 입각한 의복의 가치평가 내용이나 요소와 원리에 관한 종합적인 실험연구로서는 Delong(1977, 1980, 1983)의 연령·성별·전공에 따른 연구에서 주관적·미적 요인이 의복의 가치평가에 가장 지배적인 요인이라고 규명한 것과 Osgood(1957), Beriyn(1972) 등이 다차원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시각적 평가에 대한 응답을 수량화시켜 측정·결과·해석을 통한 가치평가 연구가 있으며, 국내에서의 선행연구들은 지금까지 주로 복식미에 관한 문헌연구에만 국한되어 왔다.

또한 국내 패션산업은 1993년 7월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내수패션 시장이 침체됨과 동시에, 해외상품과 국내상품의 경쟁이 표면화되고, 국내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뒤떨어진 패션산업 분야의 미적인 측면을 보강해야함이 절실히 요구되어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가 의류제품 선택구매시 지각하게 되는 의복의 미적 측면에 대한 시각적인 평가를 객관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면 소비자들이 보다 미적인 의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며, 의류제품 생산자에게는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미적 수준을 파악시키므로 보다 나은 제품기획에 일조할 것으로 믿는다.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의복형태에 따른 가치평가 기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미학자들의 접근방식으로 유행과 미학의 관계를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복식미학의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시하여 시각적·주관적 내용을 좀 더 객관화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 Boyd(1976)가 사물의 가치판단을 위해 개발

한 개념적 모형에 기초하여, 의복에 대한 포괄적인 가치평가 내용을 측정하고,

2. 복식미의 실증적인 고찰을 위하여 각 의복형태의 가치평가 요인을 선호도와 미적 요인으로 보아, 각 의복형태에 대한 선호도와 미적 요인간의 관계를 규명하며, 소비자의 제특성에 따른 의복 가치평가 요인의 차이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관찰자의 의복에 대한 각 유형별 선호도와 의복의 미적 요인간에 관계가 있을 것인가?

둘째, 관찰자의 제특성에 따라 의복의 가치평가 요인에 있어서 유의한 차가 있을 것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의복형태와 가치평가

#### 1-1. 의복의 가치평가

Osgood(1957)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에는 객관적인 평가보다도 주관적인 평가가 중요하다고 하였고, Boyd와 Allen(1981)의 연구결과에서도 '좋아한다-좋아하지 않는다'와 같은 주관적인 평가가 가정설비·의복·가구 등의 디자인 제품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다른 객관적인 판단에 우선한다고 하였다. Bishop(1971)도 스커트길이에 대한 응답에서 주관적인 요인이 많음을 발견했고, 의복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연령·성별·전공여부에 따라 살펴본 DeLong(1979, 1980, 1983)의 3회에 걸친 연구들은 주관적·미적 요인이 가장 지배적이며 특히 '좋아한다-좋아하지 않는다'와 같이 주관적인 평가를 표현하는 단어의 쌍이 가장 많은 변량을 설명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주관적인 평가가 의복을 인식하는데 중요한 기준임이 알려졌으나 이에 관한 연구가 부족했던 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 그 하나는 주관적인 요인이란 감정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변화가 심하고, 따라서 신뢰성이 적다

는 것이다. 그러나 Boyd(1976), Boyd와 Allen(1981)의 연구에 의하면 사물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단기간 동안에는 일관성을 가진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주관적인 평가도 신뢰성있는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또 다른 이유로는 주관적인 요인을 객관적으로 측정해낼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1-2. 관찰자의 특성과 의복 가치평가

Berlyne(1972)에 의하면 사람이 불려고 선택한 대상은 좀 새로운 요소나 비교적 친숙한 특징들을 갖고 있으며, 관찰자는 비교적 익숙한 특징들을 지닌 대상들을 흥미있는 것으로 좀 더 주시하는 반면, 너무 눈에 익숙하거나 또는 너무 새로운 요소를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는 흥미를 잃거나 무관심해진다고 하였다.

Horn과 Gurel(1981)에 의하면 의복은 지각자 또는 관찰자에게 착용자에 관한 단서를 제공하며, 이러한 단서에 대한 관찰이나 해석은 단서들로부터 형성된 판단 뿐만아니라 관찰자에게 크게 의존하고 지각의 기제를 통하여 수행된다는 것이다. 지각은 감각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자극을 통하여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인식에 관련된다. 의복의 단서나 상징을 근거로하여 이루어진 판단들의 정확성은 제시된 정보에 의존하며 지각자가 정보, 지각자의 특성, 상호작용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방법에 의존한다.

김미영과 이은영(1988)은 의류상품 유형에 따라 평가기준의 차원에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밝히고 소비자의 사회 경제 계층에 따라 각 평가기준의 차원을 중요시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Stemm(1980)이 사용한 18개의 평가 기준 측정 문항을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내의, 잠옷, 청바지의 3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으며, 블라우스, 투피스, 코트의 경우에는 미와 실용성의 2가지 차원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상류층의 경우 미의 평가기준을 더 중요시하고, 하류층의 경우 실용성의

평가기준을 더 중요시 하였다.

홍병숙(1988)은 의미미분척도법에 의해 한복과 양장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바, 양장은 활동적, 직선적, 실용성의 평가점수가 높았고, 한복은 우아함, 아름다움, 화려함, 눈에 띈다는 평가점수가 높았으며, 인구통계학적 평가의 차이는 없었다.

Morganosky(1984)는 의복의 미적·기능적·패션 지향적 소비가치와 다른 가치(즉, 필요성이나 욕구충동의 가치·재활용이나 폐기처분 등)를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연관지어 연구하였다.

### Ⅲ. 연구 방법

#### 1. 조사대상

의복의 가치평가에 관한 조사에 표집된 대상자는 효성여자대학생 160명으로 가정계열 학생 40명, 자연계열 학생 40명, 사회과학계열 학생 40명, 예능계열 학생은 40명이었다.

조사대상을 여자대학생으로 선정한 이유는 어느 연령층보다 동질적이면서도 다양성을 요구하는 연령층일뿐 아니라 유행에 가장 민감한 연령층이라고 한 Horn(1981)의 이론에 근거를 두었다. 그리고 일생 중 의복에 가장 흥미를 갖고 있는 시기는 10대 말에서 20대 초로서 목적달성과 주위의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복이 주는 영향력을 상당히 증시하고 있다고 한 Kefgen(1986)의 이론과 특히 25세 미만의 여성들이 다른 어느 연령층보다 의복을 중요시 여기며 또한 많이 구입하는 소비자층이라는 연구결과들을 기초로 한 것이다.

#### 2. 조사방법 및 절차

이 연구의 연구문제 규명을 위한 자료수집은 설문지법에 의하였으며, 설문 조사는 '93년 9/1~9/14사이에 실시하였다.

12장의 반복되는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12장의

의복 슬라이드 자극물을 하나의 슬라이드당 25초씩 보여주면서 주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 3. 측정도구

#### 1) 의복의 가치평가 도구

연구의 첫단계에서는 의복의 가치평가 기준의 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의미미분척도로 사용될 어휘를 수집한 후, 수집된 어휘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어휘수집방법에서 가치평가 기준은 문헌조사를 통하여 미적 요인(유행미, 장식미, 인체미, 기능성, 섹스미)과 선호도로 나누어서 용어정의를 하였다.

그후에 1차적으로 여대생 50명을 대상으로 평소 자신의 의복과 친구들의 의복, 패션잡지에 나타난 의복에 대해 묘사할 수 있는 어휘를 제시한 미적 요인 5개로 각각 나누어 적도록 하는 자유연상추정법에 의한 실험조사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I)

이렇게 해서 수집된 어휘들은 사용빈도로 정리하여 선행연구들(박혜선(1982), 전량진(1984), 박영순(1985), 권영애(1986), 오현정(1986), 이경희(1990), 김문숙(1993), Osgood & Tannenbaum(1978), Whisney, Winakor & Wolins(1979), Davis(1990), DeLong & Larntz(1980) 등) 중에서 의미의 함축성 정도를 기준으로 수집한 형용사와 반복되고 빈도가 높은 형용사를 택하여 총 37개 형용사쌍이 작성되어졌다.

이 형용사들을 여대생 100명을 대상으로 짝지우지않고 무작위로 배치하여 예비조사Ⅱ로 작성·실시한 결과에서 다시 어휘들을 사용빈도로 정리하였다.

여기서 선정된 형용사를 다시 여대생 50명을 대상으로 짝지운 형용사쌍을 예비조사Ⅲ로 작성하여 응답되어진 결과를 미적 요인 5개의 독립변인에 대한 각각의 요인분석과 요인추출을 주성분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Kaiser

의 Varimax회전법을 적용한 후, 본조사에 사용될 의미분척도로 완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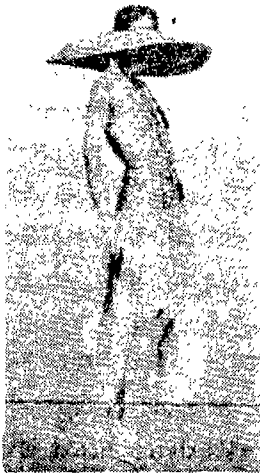
2) 의복자극물 도구 선정

의복 사진은 Boyd의 가치평가 모형에서 분류된 객관적 가치의 4가지 범주를 대표하리라 생각되는 것으로 '90년에서 '93년 현재까지 발간된 의상전문지에서 선택한 150장의 사진을 여대생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되어져.

- ① 미적이지만 실용적이 아닌 의복(사진 ; 1, 8, 9)



(사진 9) Harper's Bazaar Italia, No. 181,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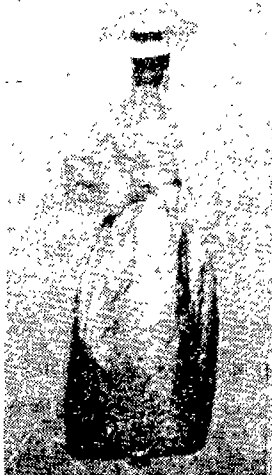


(사진 1) Collezioni—Alta Mode, No. 33, 1993

- ② 미적이면서 실용적인 의복(사진 ; 3, 7,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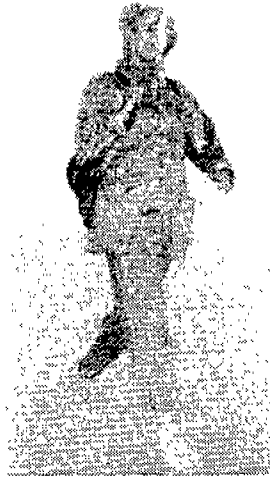
(사진 3) Gap—Fashion Eye, 199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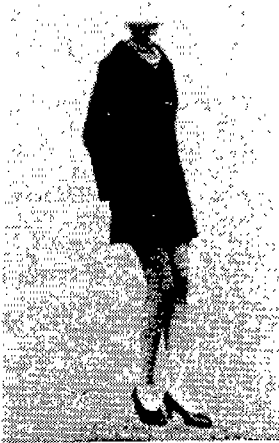
(사진 8) Mode et Mode, No. 270, 1990



(사진 7) L'officiel, No. 774,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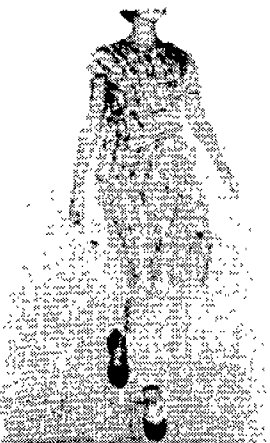
(사진 4) Mode et Mode, No. 227, 1992



(사진 12) MINE - Designer Character, 1992, Autu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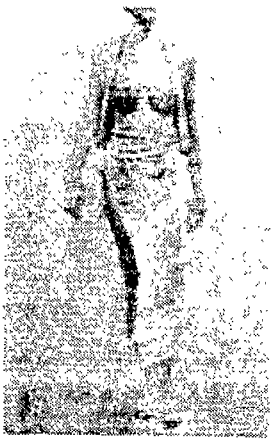
(사진 5) Mode et Mode, No. 269, 1990



(사진 6) Mode et Mode, No. 269, 1990

③ 미적인 가치는 없으나 실용적인 의복(사진 : 4, 5, 6)

④ 미적·실용적 느낌이 모두 없는 의복(사진 : 2, 10, 11)



(사진 2) Collezioni—Donna, No. 32, 1993



(사진 10) Mode et Mode, No. 281, 1993



(사진 11) Collezioni—Donna, No. 35, 1993/ '94

이상의 4가지 분류로 빈도가 낮은 60장의 사진을 먼저 제외시키고, 50명에게 다 긍정적인 반응을 받은 의복 사진을 각 유형당 3가지 의복 즉, 총 12장의 의복만을 가지고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미적인 것이란 선, 재질, 색 등의 조형요소가 비례, 균형, 강조, 리듬의 조형원리에 따라서 구성된 의복이란 관점에서 선정했으며, 실용적인 것이란 실지로 의복을 입고 생활하는데에 적합하다는 관점에서 선정하였다.

사진 모델의 인상과 주변환경효과의 통제를 위해 컴퓨터그래픽 소프트웨어의 하나인 Photo-styler를 이용하여 사진을 조작한 후, 슬라이드화 하였다.

#### 4. 통계처리

의복 가치평가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데이터는 Spss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계수 유의도검증과 변량 분석 및 Scheffe사후검증을 적용하였다.

### IV. 결과 및 고찰

#### 1. 의복유형에 따른 선호도와 미적 요인간의 상관관계

의복의 4가지 유형에 대한 선호도와 미적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계수 유의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선호경향이 높은 미적이면서 실용적인 의복은 장식미를 제외한 모든 요인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선호경향이 낮은 미적·실용적 느낌이 없는 의복은 장식미를 제외한 유행미, 인체미, 기능성, 색채미와 .001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결과가 일관성을 가짐을 보여 준다.

즉, 유행은 대중이 승인한 것이고, 계속적으로

〈표 4〉 의복유형에 따른 선호도와 미적 요인간의 상관관계

의복유형 / 미적요인	유행미	장식미	인체미	기능성	색채미
미적이지만 실용적이 아닌 의복	.27**	-.02	.48**	.22*	.16
미적이면서 실용적인 의복	.51**	.01	.51**	.31**	.39**
미적가치는 없지만 실용적인 의복	.56**	.36**	.09	-.01	.09
미적·실용적 느낌이 없는 의복	.42**	-.08	.43**	.45**	.44*

\*P<.01 \*\*P<.001

변화하며, 그 시기의 사회, 경제, 정치, 기술 등이 반영되어 형성된다. 이런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 만족은 개성·취향과 결합되어 어떤 의복을 평가하게 되는데, Gibbins(1969)과 Sproles(1981)에 의한 소비자의 의복구매시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은 유행이라고 한 연구와 일치한다. 즉, 대중적 취향인 유행은 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널리 인식한 예술형태라 하겠다.

미적이지만, 실용적이 아닌 옷은 장식미, 색채미를 제외한 유행미, 인체미, 기능성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으며, 또한 인체미는 미적이면서 실용적인 옷과 미적·실용적 느낌이 없는 옷과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의복에서 느껴지는 미적 충동은 안정과 균등의 경험을 주는 균형에서 느껴지며, 통일에 의해 좋다고 인식되거나 관심을 끄는 리듬에서 느껴지며, 매력이나 집중, 의도를 끌어서 관심의 긴장이 감소되는 강조에서 일어난다고 함으로써 의복미의 기준으로 비례, 균형, 리듬, 강조를 제시한 Jacobson(1933)의 이론과 본 연구에서 용어정의로 내린 인체미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Whitfield(1978)는 '조화(harmony)'란 요소들의 배합 결과가 질서있는 즐거움으로 인식되는 것이라 했으며,

Horn과 Gurel(1987)은 의복에서의 미적인 통합이란 균형, 리듬, 비례, 강조의 디자인 원리가 질서와 흥미, 통일감과 변화의 상반되는 힘에 의해 조절되었을 때, 그 전체 효과는 보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선호경향이 비교적 낮은 미적가치는 없으나 실용적인 의복은 유행미, 장식미와 상관관계가 있으나, 인체미, 기능성, 색채미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결과로 보아 사람들이 의복의 가치를 평가할 때 쓰이는 개념적 구조는 서로 비슷한 속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 2. 의복 가치평가 요인의 관찰자 특성별 차이검증

2-1. 의복 가치평가 요인의 전공계열별 차이검증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선호도(F=5.27, P<.05), 장식미(F=4.51, P<.05)에서 전공계열 간에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유행미, 인체미, 기능성, 색채미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전공계열에 따른 미적이지만 실용적이 아닌 의복의 가치평가 요인 점수에 대한 변량분석표와 사후검증 결과

평가요인	집 단 간			집 단 내			F
	DF	SS	MS	DF	SS	MS	
선 호 도	3	5687.16	411.72	149	11639.07	78.12	5.27*
유 행 미	3	207.16	69.05	149	10429.72	70.00	.99
장 식 미	3	568.18	189.39	149	6255.21	41.98	4.51*
인 체 미	3	228.12	76.04	149	5281.64	35.45	2.15
기 능 성	3	192.66	64.22	149	8407.46	56.43	1.14
색 채 미	3	84.55	28.18	149	4094.84	27.48	1.03

\*P<.05

Group	선 호 도				Group	장 식 성			
	G3	G4	G2	G1		G1	G4	G3	G2
	30.15	30.34	32.12	36.95		53.05	56.97	57.10	57.91
G3					G1				
G4					G4				
G2					G3	*			
G1	*	*			G2	*			

선호도와 장식미에서 전공계열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e검정한 결과, 선호도에서는 G3 G1(F=12.14, P<.05)간에, G4 G1(F=11.16, P<.05)간에, 장식미에서는 G3 G1(F=8.01, P<.05)간에, G2 G1(F=10.40, P<.05)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외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Boyd(1976)가 디자인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니는 교수진과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 그리고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의 응답을 비교했을 때 교수진과 전공학생들의 응답이 비전공 학생과의 응답보다 더 일치함을 발견한 사실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Horn과 Gurel(1981)에 의하면 자극 정보에 대한 감수성의 정도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자극을 지각하는 복합성의 정도는 지각자의 이해력과 성숙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하였다. 즉, 지각의 복합성의 정도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또는 추상적인 방법으로 관찰하느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각하는 사람은 의복의 좋고 싫음을 평가할 때 시각적으로 두드러진 특징이나 사실만을 인정하려고 하므로 반응을 기술할 때 모호한 표현을 배제한다. 반면에 추상적인 방법으로 의복을 관찰하는 사람은 특정한 의복 단서에서 많은 양상을 보고 가능한 많은 의미로 평가하므로써 의복에서 느껴지는 지각 내용이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다.

2-2. 의복 가치평가 요인의 주거형태별 차이검증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선호도(F=3.27, P<.05), 기능성(F=3.92, P<.05)에서 주거형태 간에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유행미, 장식미, 인체미, 색채미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호도와 기능성에서 주거형태간의 차이를 구



<표 7> 주거형태에 따른 미적이지만 실용적이 아닌 의복의 가치평가 요인 점수에 대한 변량분석표와 사후검증 결과

평가요인	집 단 간			집 단 내			F
	DF	SS	MS	DF	SS	MS	
선 호 도	3	795.52	265.17	149	12078.71	81.07	3.27*
유 행 미	3	494.49	164.83	149	10142.39	68.07	2.42
장 식 미	3	149.93	49.98	149	6673.46	44.79	1.12
인 체 미	3	89.38	29.79	149	5420.39	36.38	.82
기 능 성	3	629.16	209.72	149	7970.96	53.5	3.92*
색 채 미	3	61.95	20.65	149	4117.43	27.63	.75

\*P<.05

선 호 도				기 능 성					
Group	G3	G1	G2	G4	Group	G4	G3	G2	G1
	30.93	31.19	32.72	41.63		20.50	21.79	26.80	27.34
G3					G4				
G1					G3				
G2					G2				
G4	*				G1	*			

체적으로 알아보기위해 Scheffe검정한 결과, 선 호도에서는 G3 G4(F=7.19, P<.05)간에, 기능성에서는 G4 G1(F=6.08, P<.05)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외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역시 Holbrook과 Moor(1981)의 연구에서 가치

평가 대상물이 관찰자의 주거형태를 역으로 설명하는 요인이 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준다.

2-3. 의복 가치평가 요인의 가정의 월평균 수입별 차이검증

<표 8-1> 월평균 수입에 따른 미적이지만 실용적이 아닌 의복의 가치평가 요인 점수에 대한 변량분석표와 사후검증 결과

평가요인	집 단 간			집 단 내			F
	DF	SS	MS	DF	SS	MS	
선 호 도	5	2222.19	444.44	147	10052.05	72.46	6.13*
유 행 미	5	1498.31	299.66	147	9138.56	62.17	4.82*
장 식 미	5	509.13	101.83	147	6314.26	42.96	2.37*
인 체 미	5	1013.23	202.65	147	4496.54	30.59	6.63*
기 능 성	5	1118.55	223.71	147	7481.57	50.90	4.40*
색 채 미	5	547.95	109.59	147	3631.44	24.70	4.44*

\*P<.05

	선 호 드					
Group	G3	G4	G2	G6	G5	G1
	30.70	31.00	31.21	35.12	35.75	72.00
G3						
G4						
G2						
G6						
G5						
G1	*	*	*	*	*	

	유 행 미					
Group	G1	G3	G4	G6	G2	G5
	24.00	44.72	48.67	48.76	50.37	51.55
G1						
G3						
G4						
G6						
G2						
G5	*					

	장 식 미					
Group	G1	G3	G6	G4	G5	G2
	34.00	55.86	56.32	56.37	55.60	56.79
G1						
G3						
G6						
G4						
G5						
G2	*					

	인 체 미					
Group	G4	G3	G2	G5	G6	G1
	53.03	54.64	55.26	56.50	58.16	79.00
G4						
G3						
G2						
G5						
G6	*					
G1	*	*	*	*	*	

Group	기 능 성					
	G2	G6	G3	G5	G4	G1
	22.11	23.64	26.46	27.85	28.18	47.00
G2						
G6						
G3						
G5						
G4						
G1	*					

Group	색 채 미					
	G5	G4	G3	G6	G2	G1
	35.40	36.03	37.72	36.88	36.95	59.00
G5						
G4						
G3						
G6						
G2						
G1	*	*	*	*	*	

<표 8-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선호도(F=6.13, P<.05), 유행미(F=4.82, P<.05), 장식미(F=2.37, P<.05), 인체미(F=6.63, P<.05), 기능성(F=4.40, P<.05), 색채미(F=4.44, P<.05)에서 가정의 월평균 수입간에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선호도, 유행미, 장식미, 인체미, 기능성, 색채미에서 가정의 월평균 수입간의 차이를 구체적으

로 알아보기위해 Scheffe검정한 결과 선호도에서는 G1 G3(F=23.08, P<.05), G1 G4(F=22.60, P<.05), G1 G2(F=21.81, P<.05), G1 G6(F=18.05, P<.05), G1 G5(F=17.27, P<.05)간에, 유행미는 G1 G5(F=11.63, P<.05)간에, 장식미는 G1 G2(F=11.49, P<.05)간에, 인체미는 G6 G4(F=12.99, P<.05), G1 G4(F=21.49, P<.05), G1 G3(F=19.02, P<.05), G1 G2(F=17.50, P<.05),

<표 8-2> 월평균 수입에 따른 미적이면서 실용적인 의복의 가치평가 요인 점수에 대한 변량분석표

평가요인	집 단 간			집 단 내			F
	DF	SS	MS	DF	SS	MS	
선호도	5	116.85	23.37	147	7936.54	53.99	.43
유행미	5	210.23	42.05	147	6781.18	46.13	.91
장식미	5	76.77	15.36	147	6538.77	44.48	.35
인체미	5	57.38	11.48	147	5886.83	40.05	.29
기능성	5	286.64	57.33	147	8877.12	60.39	.95
색채미	5	89.32	17.86	147	4910.80	33.41	.54

\*P<.05

G1 G5( $F=15.76$ ,  $P<.05$ ), G1 G6( $F=13.65$ ,  $P<.05$ ) 간에, 기능성은 G1 G2( $F=11.57$ ,  $P<.05$ ) 간에, 색채미는 G1 G5( $F=21.48$ ,  $P<.05$ ), G1 G4( $F=20.82$ ,  $P<.05$ ), G1 G3( $F=19.70$ ,  $P<.05$ ), G1 G6( $F=18.91$ ,  $P<.05$ ), G1 G2( $F=18.71$ ,  $P<.05$ )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8-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선호도, 유행미, 장식미, 인체미, 기능성, 색채미에서 가정의 월평균 수입간에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미적이면서 실용적인 의복은 보편적인 의복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며, 미적이지만 실용적이 아닌 의복은 가정의 월 평균 수입정도에 따라 가치평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 가치평가 요인을 선호도와 미적 요인(유행미, 장식미, 인체미, 기능성, 색채미)으로 보고, 4가지 의복유형별 선호도와 미적 요인간의 관계를 밝히며, 체특성(전공계열, 주거형태, 가정의 월평균 수입)별 가치평가 요인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나온 결과와 고찰을 통해 나타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에 대한 4가지 유형의 선호도는 의복의 미적 요인과 관계가 있다.

- ① 관찰자의 미적이지만 실용적이 아닌 의복의 선호도와 유행미, 인체미, 기능성과 관계가 있다.
- ② 관찰자의 미적이면서 실용적인 의복의 선호도와 유행미, 인체미, 기능성, 색채미는 관계가 있고 장식미는 관계가 없다.
- ③ 관찰자의 미적인 가치는 없으나 실용적인 의복의 선호도와 유행미, 장식미는 관계가 있고 기능성은 관계가 없다.
- ④ 관찰자의 미적·실용적 느낌이 모두 없는 의

복의 선호도와 유행미, 인체미, 기능성, 색채미는 관계가 있고 장식미는 관계가 없다.

둘째, 의복의 가치평가 요인(선호도, 유행미, 장식미, 인체미, 기능성, 색채미)은 관찰자의 체특성(전공계열, 주거형태, 가정의 월평균 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다.

- ① 관찰자의 전공계열에 따라서 미적이지만 실용적이 아닌 의복의 선호도와 장식미는 차이가 있으나, 유행미는 차이가 없다.
- ② 관찰자의 주거형태에 따라서 미적이지만 실용적이 아닌 의복의 선호도와 기능성은 차이가 있다.
- ③ 관찰자의 가정의 월평균 수입에 따라서 미적이지만 실용적이 아닌 의복의 선호도와 가치평가 요인은 모두에서 차이가 있으나, 미적이면서 실용적인 의복의 가치평가 요인은 차이가 없다.

이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얻는 과정에서 의복의 가치평가에 대한 후속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1. 이 연구의 독립변수인 선호도와 미적 요인은 문헌연구에 기초하여, 응답자들에게 자유연상기술법으로 직접 얻어낸 것이지만, 그 범위가 여대생으로 한정되었으므로, 좀 더 다양한 연령층과 남·녀를 대상으로 의복 가치평가의 설명변수를 얻어내고, 그 변수로써 종속변수를 설명한다면 의복시장에 좀 더 설득력있는 유용한 연구가 될 것이라 사려된다.
2. 의류구매계획과 관련하여 좋아하는 감정과 사고싶다는 욕구의 일치도를 조사하면 주관적인 가치와 구매욕구간의 상호관계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영애, "의복의 유행단계에 따른 지각반응 연

- 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김문숙, 「패션과 색채」, 서울 : 도서출판 경춘사, 1988.
  - 김미영 · 이은영, “의류 상품 유형별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Ⅱ)”, 한국의를학회지, 26(3), 1988.
  - 박영순, “의미미분척도법에 의한 디자인 평가도구의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 박혜선 · 이은영, “의복에 대한 의미미분척도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논문집, 7, 1982.
  - 이경희, “의복형태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Arnheim, R., *Arts and Visual Perception*, Berk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6.
  - Arhieme, R., (김정오 역), 「시각적 사고」, 서울 : 이대출판부, 1983.
  - Bear, M., “Visual Recall of Dress Design Determined by Perceptual Style”, *H. E. R. J.*, 9(2), 1980.
  - Bell, C., *Significant form In A Modern Book of Aesthetics*, N. Y. : Holt, Reinhart and winston, 1935.
  - Berlyne, D. E. , “Ends and Means of Experimental Aesthetics”, *Canadian Journal of Psychology*, 26, 1972.
  - Bishop, S. “Meaning Variations of Selected fashion innovations among the adopter categories.”, Unpublished maters thesis, university of Minnesota, 1971.
  - Boyd, V. T., “Valuing of the Material Environment : A Conceptual Modes of Object Value”,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Ann Arbor, Mich : University Microfilms, 37106A, 1976.
  - Boyd, V. T. & Allen, T. F. H., “Liking and disliking household objects”, *H. E. R. J.*, 9(4), 1981.
  - Davis, Marian L. (이화연 외 역), 「복식의 시각 디자인」, 경춘사, 1990.
  - Delong, M. R., Carol salusso-deonier & Larntz, K., “Use of perceptions of female dress as an indicator of role definition”, *H. E. R. J.*, 11(4), 1983.
  - Delong, M. R., “Clothing and Aesthetics : Perception of Form”, *H. E. R. J.*, 5(4), 1977.
  - Delong, M. R. & Larntz, K., “Mearsuring Visual Response to Clothing”, *H. E. R. J.*, 8(4), 1980.
  - Forgus, R. H., *Perception : The Basic Process in Cognitive Development*, N. Y. : McGraw-Hill, 1966.
  - Gibbins, K., “Communication aspects of women’s clothes and their relation to fashionability”,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8, 1969.
  - Horn, M. J. & Gurel, L. M. (이화연 외 역), 「의복 : 제2의 피부」, 까치, 1987.
  - Kefgen, M. & Touchie-Specht, P.,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4th ed., New York, Macmillan, 1986.
  - Lee, H. N., *Perception and Aesthetic Value*, N. Y. : Printice, Inc, 1938.
  - Morganosky, M. A., “Aesthetic and utilitarian qualities of clothing : use of a multidimensional clothing value model”, *H. E. R. J.*, 13(1), 1984.
  - Osgood, C. E., & Tannenbaum, D. H., *The Measurement of meaning* (4th ed.), Urbana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57.
  - Sproles, G., “Perspectives of Fashion : The Role of Aesthetics in Fashion” *Oriented Consumer Behavior*, 1981.
  - Whisney, A. J., Winakor, G. & Wolins, L.,

"Fashion Preference : Drawings versus photographs", *H. E. R. J.*, 8(2), 1979.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consider the aesthetic side in the clothing positively, search the relationships of the preference and the aesthetic factors in the general costume of body form, analyze consumers' characters against the value evaluation factors.

Stimuli and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is study.

The stimuli were twelve color photographs on clothed bodies differing in the degree of beauty and function.

The scales were chosen to measure variables referring to sundry records, preliminary examination.

The following null-hypotheses were esta-

bilished for this study.

I. Viewer's preference for the general 4 costumes of body forms will have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aesthetic factors of clothing.

II. Value evaluation factors of clothing will b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various viewer's characters

Data were obtained from 160 females students.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pc<sup>+</sup> program-correlation coefficient, one-way ANOVA and scheffe-tes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I. The viewer's preference for general 4 costumes of body forms has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aesthetic factors of clothing.

II. Value evaluation factors of clothing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various viewer's characters.